

순천시 “시민 누구나 즐기는 매력건강도시 조성”

건강수명 71세→82세 향상 계획 매년 시민 1000명 건강조사 실시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 체계 강화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도심 속 정원과 함께 조성된 웰니스 공간을 활용해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매력적인 건강 도시구축에 나섰다.

8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기 시민 걷기프로젝트 일환으로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을 통해 매일 1만보 걷기 챌린지를 운영, 1만여명의 참여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걷기, 치유의 기능을 더한 문화로 만들어 간다.

올해부터 걷기를 통해 건강과 활력을 찾고 있는 시민들의 걷기문화 수요를 반영해 맨발걷기, 웰니스 노르딕 워킹까지 확대 운영한다. 웰니스 노르딕 워킹은 크로스 컨트리 선수들이 눈이 없는 여름시즌 훈련방법으로 노르딕 폴을 활용해 걷기하는 운동이다.

시는 8주 교육과정으로 시민 25명 수강생을 모집해 지난달 8일부터 용당 동천수변공원에서 전문강사 지도로 운영하고 있다.

2018년 순천시민 건강수명이 71.8세(2018년 전국 평균 70.4세)로 전국 33위로 나타났다.

시민 건강수명을 2050년까지 82.8세까지 높인다는 도시지표를 정해 건강하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매년 순천시민 10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설문은 지역의 건강행태, 질병관리, 건강문제, 보건사업 요구도 등 19개 영역 138개 문항을 조사하고 다음년도 시민 건강증진 정책 수립 시 반영하고 있다.

걷기문화 조성, 건강수명 향상에 이어 만성질환 등 사망원인별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고혈압, 당뇨, 국가 5대암, 치매, 정신질환, 심뇌혈관질환 등 질병별 예방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 관내 민간의료기관, 의사회, 자조모임, 건강관련 전문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 10대 사망원인을 중심으로 시민 건강관리 사업에 198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시는 직장, 아파트, 마을 등 생활터를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 등 건강측정, 상담, 찾아가는 건강보건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를 확대해 가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에서 정착하고 생활하면서 질병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강수명을 최대한 늘려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생대수도 일류순천의 목표”라며 “사람중심의 건강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여수시, 전남도내 유일 선정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복지부 주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2국비 27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만 75세 이상 병원·시설 입소 경계선상 및 섬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 2500명에 의료와 돌봄이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34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서면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12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시는 4개 분야(방문·의료, 건강·돌봄, 주거지원, 돌봄 인프라 구축) 13개 핵심사업의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 오는 7월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읍면동 통합지원장구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양식어류 저수온 피해복구 총력 여수시, 10일까지 정밀조사

여수시가 지난달 30일부터 여수해역 가두리 양식장에서 발생한 양식어류 집단폐사 원인이 저수온으로 판명됨에 따라 정밀조사를 통한 본격 피해복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일 폐사 원인을 조사한 국립남해수산연구소,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등 심의를 통해 양식어류 폐사 원인을 저수온으로 판정했다.

올해 초 몰아닥친 강한 한파로 물고기 면역력이 떨어져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돌산읍·남면·화정면·월호동 64어가에서 345만마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신고 됐으며 여수해역에 내려진 저수온 특보가 지난 6일자로 해제돼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시는 정확한 피해조사를 위해 유관기관·단체 합동조사반을 편성 10일까지 피해 지역별로 폐사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세부 복구계획을 수립해 전남도와 해양수산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폐사체 50톤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전량 수거, 위탁(매몰) 처리해 해양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고향사랑 기금 운용 적극 발굴 보성군,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보성군은 7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보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매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을 심의한다.

참석자들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고향사랑기금 운용을 통한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기금운용 심의회에서는 올해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보성군은 의결된 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성군의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기금설치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금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부문화 조성 및 홍보 방법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은지 기자



여수시가 지난달 30일부터 여수해역 가두리 양식장에서 발생한 양식어류 집단폐사 원인이 저수온으로 판명됨에 따라 정밀조사를 통한 본격 피해복구에 나섰다.

여수시 제공

옛 장흥교도소 중심 ‘남도 무비로드’ 조성

군·전남관광재단 업무협약 ‘영화길’ 관광상품 개발기로

장흥군과 전남관광재단이 옛 장흥교도소를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 공동개발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열린 협약식에 김성 장흥군수, 이건설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영현 옛 장흥교도소 문화재생산업단 단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옛 장흥교도소 콘텐츠 발굴과 운영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무비로드(남도 영화길)’ 브랜드를 선



점해 관광상품 기획 및 홍보마케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민사업체-관광기업-여행사로 이어지는 연계 체험상품을 기획하는 등 다양한 판로 개척에 합의했다.

현재 옛 장흥교도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일의 감옥 실물 촬영지로, 연간

20여편 영화와 드라마 촬영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색과 치유의 갯생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을 통해 감옥테마공원으로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옛 장흥교도소를 거점으로 한 주제별 권역별 무비로드 조성은 물론, 교도소 내 감빵영화제 등 교도소 특화사업과도 연결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옛 장흥교도소는 장흥 관광 총체적 집합소 역할을 하며 전남도 여행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장흥군을 영화 촬영의 메카로 만드는데 이번 전남관광재단과 협약이 그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 탄소중립 실천 다짐

광양시·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한 박병관 상임대표, 40개 참여기관·단체 대표자, 실무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사업·감사보고 및 2023년 사업과 예산을 승인했다.

2022년 실천 사업으로 △그린 리더 양성 교육 △폐현수막 및 천류 자원순환 사업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한파 영향 취약계층 지원사업 △상설환경교실 △저탄소생활 실천 홍보 캠페인 △시민생활용 리폼대회사업 등 활동을 펼쳤다.

신규 사업인 △한파 영향 취약계층 지원사업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자원순환 업사이클 교육은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했다.

2023년 실천 사업으로 △탄소중립 실천 양성 교육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사업 △자원순환을 위한 천

류 업사이클 사업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포럼 △한파 영향 취약계층 지원사업 △상설환경교실 운영 △탄소중립 실천 홍보 등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심의했다.

박병관 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지구 온난화로 온 세계가 긴장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의지를 다지고 있고 우리 정부도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오래전에 국가시책으로 발표했다”며 “광양시와 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 또한 가정, 직장, 경제활동을 하면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시행 보성군, 다회용품 사용 확대

보성군은 이달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를 진행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사용하지는 법국민 실천운동으로 김철우 군수가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첫 주자로 참여했다.

김 군수는 다음 챌린지로 주자로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보성지부 △한국의식업중앙회 보성군지부 △보성교육청을 지목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일회용품과의 착한 이별, 다회용품 사용에 동참해줄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상설 체험부스 운영자 모집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중 운영되는 상설 체험부스 1기 운영자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상설 체험부스는 박람회장 내 8개동이 설치되며 박람회를 찾는 방문객들에 △가족 및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건강 및 힐링 프로그램 △정원 소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체험부스 운영자는 박람회 기간 중 3기수로 나눠 모집하며 1기 운영자는 개장일인 4월1일부터 6월4일까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기 운영기간에 부스 운영이 가능한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vsjback@hanmail.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직위는 박람회 주제 연관성, 독창성, 중복여부 등을 고려해 20일까지 최종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운영자에게는 부스, 테이블, 의자, 전기 등 기본적인 운영시설이 제공된다.

정원박람회 공식 누리집(https://scbay.suncheon.go.kr/expo)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